



美 금리인상 영향 다각도로 점검

- 9월 美 FOMC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 및 잠재 리스크 점검
- 과도한 국채시장 쏠림 및 취약차주 부담에 대해서는 적시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 9. 17.(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신현승,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덕원,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참석자들은 美 연준이 견조한 경제·고용 여건과 물가의 높은 수준 지속,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으며 금융시장 여건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므로 이번 인상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연준의 강화된 물가안정 의지,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주 예정된 일본중앙은행(BOJ)·영국중앙은행(BOE) 등의 통화정책 결정에 주목하면서, 국제유가와 글로벌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美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채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시장쏠림이 과도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대출금리 상승 동향을 점검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가중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기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경상수지 흑자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시중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하였다. 참석자들은 관련 자금흐름과 유동성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금융·자산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구 부총리는 그간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장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제·금융팀이 그간 구축해온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정경제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창기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jeeminkim@korea.kr)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황희정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이창선 (dje9350@korea.kr)
	국고실 국채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민주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김선익 (ksi1206@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이경배 (groundback@korea.kr)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윤대혁 (02-759-4777)
		담당자	과 장 장동산 (dongsan@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은성 (02-3145-8180)
		담당자	수 석 김태중 (kim-tj@fss.or.kr)